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 수사

루가 제14주일

성 브르피리오스 수도사제, 하바꼭 예언자,
성 미로빠 순교자

제2조, 조과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토스 성찬예배에서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A 212
- 주일 입당송 '모두 가까이 와서' / 14, A 42
- 수도사제 찬양송 / 85, B 267
- 성당 찬양송
- 성탄 대림 시기송 / 208, B 253
- 사도경 : 에페소 6,10-17 / 봉독서 345
- 복음경 : 루가 18,35-43 / 132, B 83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 수사

우리 교회는 12월 4일에 성 바르바라 대순교자와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 수사를 축일로 기념합니다.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676~749)은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성가작가와 신학자,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 중 한 분입니다. 성화 논쟁 당시 용기 있게 박해에 저항하였으며 신학적인 논증을 바탕으로 성화 공경을 지지하셨습니다.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체계적인 신학자였으며 후에 성가 작가로서, 시

인과 음악가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께서는 그리스 전통 음악을 이용하여 8조로 구성된 교회 성가 체계를 세웠으며 «부활의 날에 백성들이여...»로 시작되는 부활 대축일 까타바시아를 비롯하여 많은 대축일 카논을 작사하셨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께서는 자신의 삶과 업적을 통해 수도사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가치를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르티매오의 영적인 눈

이사야 예언자가 “너희는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이사야 6,9)”라고 예언하셨다. 우리는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의미가 없다. 우리의 불완전한 인식을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다.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날씨가 몹시 덥겠다.’고 말하면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이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루가 12,54) 우리는 강이나 산이나 바다를 여행하다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느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음경을 읽기 전에 주님께 다음과 같이 간청의 기도를 드린다. “자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시어, 모든 욕망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함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육적인 눈과 내적 즉 영적인 눈이 있다. 단지 눈으로 보고 책 읽듯이 성경을 읽는다 해서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영적인 눈을 갖도록 간청하는 것이다. 티매오의 아들인 소경 바르티매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죄악으로 물든 도시인 예리고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던 사람이었다. 그는 지나가시는 분이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라고 외치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의 애절

하면서도 끊임없이 외치는 간청에 걸어가시던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침을 멈추게 하려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가 눈을 뜨자 바라본 것은 타락한 예리고의 거리가 아니라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었다. 그는 육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뜨여 그 즉시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함께 걸어갔다. 예수님을 바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회복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영적인 삶을 영위할 때 구세주 예수님과 함께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게 된다고 교회의 교부들은 말씀하신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었던 것도 내적(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우리 눈이 건강하여 모든 사물을 잘 볼 수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고서 예리고의 소경 바르티매오처럼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열 번, 스무 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뜨일 때까지, 어떠한 장애물이 나타나 기도를 방해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온 힘을 다해 끊임없이 외쳐야 한다. 바르티매오는 이 예수 기도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다. 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복음의 말씀 속에 담겨진 무한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우리는 각자 고유하며 복제품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다. 세계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같은 지문, 같은 성격 또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런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고 즐거워하는 대신에, 우리는 흔히 집단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선물인 이런 고유함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그것이 사라지게 한다. 누군가 말한 대로, “대부분의 사람은 고유한 원본으로 태어났지만, 복사본으로 끝을 맺는다.”

이런 현상은 참으로 악덕(惡德)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특별함과 고유성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창조주가 바라는 특별한 인격체가 되길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잃기 시작한다. 집단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은 자유로운 인격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참으로 살지 않는다. 도리어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대신 살도록 시킨다.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따라가야만 하나,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거의 알지 못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마침내, 그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더러 무엇을 해라, 어디로 가라 라고 말해 주길 바라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는 더 이상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유한 인격이 아니라 단지 통계 자료에 잡히는 한 개체일 따름이다.

(안토니M. 코냐리스 신부의
‘정교 가정에서 하느님을 생생히 경험하기’에서 옮김.)

▶ 아타나시아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님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는 12월 7일(금)에 축일을 맞이하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어, 주님의 양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소 식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성하 방문 일정

- 12월 3일 월요일 오후 8시 : 환영식(서울 가든 호텔 로비)
- 12월 5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성 니콜라스 축일 대만과 예배 집전
오후 8시 : 신자들과 만찬(대교구청 선교회관)
- 12월 6일 목요일 오전 9시 : 성 니콜라스 축일 조과 예배 집전
오전 10시 : 성 니콜라스 축일 성찬예배 집전
오후 12시 30분 : 신자들과 사랑의 오찬(대교구청 선교회관)
오후 3시 : 구세군 자선 남비 모금 참여, 브릿지 센터(노숙자) 방문
-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 환경에 관한 국제심포지엄(그랜드 힐튼 호텔-그랜드 볼룸)
정교회 정통에서 본 생태학,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
오후 12시 : 세계총대주교 저서 '신비와의 만남' 한국어판 출판기념회
오후 5시 : 국제심포지엄 폐회식

세계총대주교님의 한국 방문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우님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우님들께서는 일정을 조정하셔서 위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계총대주교 성하의 모든 한국 방문 일정이 하느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잘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참여하실 분들은 준비를 위해 서울 성당 사무실이나, 대교구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성 니콜라스 축일 시작 ▷ 오늘 12월 2일 주일부터 성 니콜라스 성화와 성 유해를 성당 중앙에 놓으면서 축일이 시작됩니다. 모두 함께 우리의 수호 성인 축일에 동참합시다.
- 성당 카펫트 교환 ▷ 서울 성당에서는 오랜 세월에 의해 지지분해지고 상한 성당 바닥 카펫트를 교환하였습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성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